

體育特技生の 入學, 指導, 管理

孔 應 大

(仁川大 體育學科 教授)

우수한 선수나 훌륭한 體育指導者가 되기 위해서는 體力, 技術, 知的能力, 精神 面에서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體育特技生の 경우 學業履修能力이 일반 학생보다 대체로 낮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教育方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I. 體育의 概念

體育學은 철학, 역사, 사회, 심리, 생물, 화학, 물리, 통계 등의 여러 학문을 기초로 한 학문이다. 體育學科의 敎科課程은 체육원리, 체육역사 및 철학, 체육사회학, 체육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측정평가 및 통계 등의 과목을 必須科目으로 하여, 30여 가지의 이론과 실기 과목으로 나뉜다. 현재 한국의 체육대학은 일반적으로 체육학과, 경기과, 무용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社會體育學科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건강학과도 체육대학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도 사회체육학과의 신설이 시급하다. 사회 변천에 따른 많은 시민의 건강 의식과 스포츠 활동이 급증하는 現社會現象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새로운 사회체육학 발전을 요청하고 있다. 선진국의 文化生活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여가선용 스포츠활동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체육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체육문화, 의식개조 그리고 스포츠 과학의 경기력 향

상 등 광범위하게 여러 학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交替學問이며 또한 집약적이기 때문에 학문의 集大成이라 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하며 체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스스로 참여하여 즐거움을 찾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땀 흘려 성공적으로 이룬 成就感을 행복하게 맛보게 하면서, 리더십을 가르쳐 指導力을 키우고 화합과 단결의 훈련을 배우며, 민주시민을 만드는 것을 체육교육의 目標로 한다. 체육은 민주시민 육성, 의식 개조, 체력 육성, 건강 유지, 평생스포츠, 경기력 향상 등의 교육적 바탕에서의 중요성을 갖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教育인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체육대학은 대단히 수준 높은 敎授陣으로 짜여져 있다. 한국의 59개 대학의 체육학과도 각각의 전문 분야에 많은 수준급의 학자를 필요로 하는 未開拓分野이기도 하다.

II. 學生선수의 授業과 訓練

어린 선수 양성에 있어서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遠見과 높은

차원의 비전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스포츠는 百年大計를 세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86년 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위한 競技力向上은 물론 미래의 훌륭한 體育指導者를 양성하기 위해 학업과 운동훈련에 시간을 잘 분배·조절하여 교육 목표 달성과 함께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선수는 체력, 기술, 두뇌, 정신을 잘 키워야 훌륭한 세계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 과학적 방법의 체력 향상, 기본기술 습득, 공부를 바탕으로 한 두뇌 발달, 국가관 확립과 같은 精神力의 강화가 앞서야 한다. 현재 선수 양성에 있어서 국민학교·중학교 선수에게 오전 수업밖에 시키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은 실정이다. 학생 선수는 자주 수업을 빠지므로 한 과목의 授業內容이 연결되지 않아 수업의 이해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따라 가기가 어렵게 된다. 각 시도별 소년체전 참가 선수들은 수개월씩 集團合宿訓練을 시켜 가며 운동훈련 위주로 수업을 전폐하다시피 훈련만 시키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편협된 체육문화 인식, 선수 교육의 경시에서 온 현상이라면 意識構造와 사회상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뇌가 발달되지 않은 선수는 게임에서 응용성, 창의성이 약하며 순간 판단의 두뇌 회전이 느리다. 또한 상대방의 攻略에서 이겨내는 힘도 적을 뿐 아니라, 安全性이 적고 起伏이 심해서 계속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세계적 선수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코치가 되려면 대단히 우수한 두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선수, 공부하는 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한 것이다. 타성에 젖은 固定觀念에서 탈피 못한 경직된 자기 이익 중심의 의식은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훈련의 측면에서 볼 때 어린 선수는 짧은 시간 동안 훈련을 효과 있게 시켜 갈 때 體力는 점진적으로 향상되며 조금씩 기술을 알아갈 때 권태감 없이 성장할 수 있다. 무리없이 生理的 順理를 따라 훈련하는 것은 훌륭한 선수를 키우는 단계일 것이다. 우수한 세계적 선수를 양성

하는 데는 方向, 目標, 段階別 범위가 설정된 가운데서 성장되어야 하는 것은 훈련의 기본 바탕인 것이다. 어려서 일찍 무리하게 促進法으로 훈련되어 활짝 핀 꿈나무의 꽃은 일찍 시들어지며, 최고 적합한 연령 이전에 꽃을 피우면 일찍 시든다. 육상의 경우 소년체전의 우승자 중 매우 적은 숫자가 韓國代表選手로 성장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 순리에 따라 훈련되어야 하고 조금 부족된 훈련보다 어려서의 지나치게 무리한 훈련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88서울올림픽이 꿈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초중학생에게 力點을 두는 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수영, 기계체조 등은 스포츠 적령이 낮기 때문에 현재 국민학교·중학교 선수가 적합하다. 그러나 그 외 많은 種目은 아직 적은 수의 초·중학교 선수가 88올림픽에 참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스포츠의 과학적 뒷받침인 것이다. 육상, 축구, 농구, 배구, 역도 등의 많은 종목에 있어서 올림픽 연령은 25세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세 내외의 선수가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꿈나무이며 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연령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학생의 소년 체전의 모순된 問題點을 지금부터 지혜스럽게 해결하여 주고 과감한 是正政策으로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면으로 개선하여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백년대계의 장기 안목으로 장래의 문을 열어 주는 올바른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운동만 주로 하며 자란 선수들은 體育特技者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다. 중학교 졸업의 실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特典이 배풀어진다. 이와 같은 制度下에서 중학교 선수는 학업에 더욱 멀어져 가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시간은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指導者나 教師는 현 제도와 여건 하에서 지도할 수밖에 없다.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의 교사는 教師 評價表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 승진할 수 있는 득을 얻게 되는 지역도 있어서, 교사는 선수의 장래보다도

무리하더라도 현재 성적을 올려 자기의 점수를 얻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關心도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도 검토해야 한다.

중학교에서 특기자 혜택으로 高等學校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운동할 수 있는 자질은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적어지는 것이다. 공부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가면 갈수록 공부는 어려워지며, 두뇌가 명석하고 공부에 소질 있던 선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업면에서 가장 쳐지는 성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대학 입학 자격의 성적이 되지 못하는 學力考查成績을 가지고 또 다시 대학에 체육 특기자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惡循環의 과정을 밟게 된다. '83학년도 대학입학 성적 일람표에 의하면 體育特技者의 성적은 110점대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120점대를 맴돌고 있는 낮은 점수이다. 이 점수는 일반 학생 입학수준 점수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낮은 점수로 보아야 되고, 이미 대학수업 이수 능력이 없는 점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준 낮은 능력으로 대학에 입학한 대학선수들에게는 젊음의 번뇌와 고민이 따라 오게 마련인 것이다. 철이 들고 자신의 위치에 눈을 뜬 大學選手는 왜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안했느냐? 왜 코치는 운동만 시켜서 똑똑하던 나를 이와 같이 다른 학생보다 처지게 만들었느냐고 자문할 機會가 오는 것이다. 대학에서 學點을 어떻게든 따야 하지만 실력으로 성적을 받기는 이미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든 못 내든 간에 대학선수로 활동하던 學校當局은 학업 성적에 관계없이 선수라는 명목하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시켜 졸업시키는 것이 오랫동안 내려온 한국 특유의 選手管理指導의 통례가 되어 왔다. 부정적 방법에 의해 성적을 받아 내어 장래 體育指導者의 자격을 받고 졸업하는 놀라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부조리를 당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大學社會는 이미 대학의 본질에서 멀어져 간 전락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모순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개선시켜 당당한 학생선수로 키워 주려면 역시 학교 당국의 改善策이 앞서야 하고, 학교 당국은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또한 대학 수급능력 자격 미달 선수가 교사 자격증을 받아 한국 체육교육에 참여하는 현실은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意識改革에 발 맞추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체육교육과 학생선수 양성의 문제점을 재검토·개선하여 韓國體育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학은 공부하며 운동하는 곳이다. 공부하지 않고 운동만 하는 선수는 미래의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대학생의 자격이 없으므로 대학에서 떠나야 마땅하다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Ⅲ. 體育特技者의 대학입학 惠澤 개선

대학 진학 때 운동선수가 받는 혜택을 연차적으로 개선, 88올림픽 이후에는 선수 특기자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대학 입학을 위한 선수의 학력고사 성적에 最低線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선수의 학력고사 성적의 최저선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그 이상의 자격자만 특기자 혜택을 받게끔 한다. 이와 같은 5年計劃을 수립하여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수를 양성할 때 한국체육의 전망은 밝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둘째, 전국대회 3위 이상만 혜택을 주는 것을 지방대회까지 확산시키거나 3위로 국한시키고 있던 것을 種目別에 따라서 10~20위 선수도 체육 특기자 혜택을 받게 하여 좁으므로 추진범 훈련을 적게 한 우수한 運動潛在力을 가진 선수 또는 늦게 성장하는 선수, 공부에 비중을 더 두었던 선수, 훌륭한 코치 밑에서 자라지 못한 선수, 환경의 興件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바람직하다.

셋째, 단체 경기에 있어서 팀은 약하나 個人能力이 높은 선수가 혜택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기 팀이 체육 특기자 자격 해당권 이내에 들지 못해 발탁되지 못하는 優秀選手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네째, 클럽스포츠를 저변확대시켜 가며 知的

으로 뛰어난 학생의 스포츠참여 및 관심도를 높이는 大學風土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학클럽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大學體典을 만들어 비등록 선수인 순수 아마츄어클럽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학생 전체의 스포츠 참여,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교 풍토의 조성, 우수한 선수의 경기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같은 클럽스포츠의 발달은 대학 체육특기자의 입학혜택이 개선되는 데 간접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의 이유 중 한 예로서는 청소년 팀은 促進訓練에 의해 외국과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만 성년이 된 후에는 성적을 잘 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중·고교 때 공부와 운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시키고, 연령에 맞게 체력을 연마시켜 가는 것은 歐美뿐 아니라 日本, 中國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려서 눈에 띄지 않던 中·長距離選手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후 세계적 선수로 등장한 예가 많은 것을 구미 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어려서 조속한 선수보다 나이 들어大成할 수 있는 선수로 키우기 위한 方案摸索도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한국에서는 부유하고 지식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운동선수로 양성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학업의 落伍者가 되기를 원치 않는 학부모의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수로 키우는 것이 공부만 잘 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큰 教育的 社會的 利點이 있을 때 비로소 학부모가 운동선수로서의 참여를 기쁘게 허락할 수 있는 社會的 與件이 조성될 것이다.

IV. 대학 체육특기자의 管理 및 指導

체육 특기자는 學業 水準이 일반 학생과 같지 못함을 먼저 인식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방임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教育方案을 모색해야 한다. 좀더 적극적으로 선수 학업관리에 임해야 할 것 중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 특기자는 가능한 한 授業에 빠짐

없이 참석시켜 공부하게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및 타교팀과의 午前練習은 피한다. 오후 3시가 지나서 연습을 하여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 학교당국과 학교내 선수양성 담당자들은 선수를 공부시킬 수 있도록 의식적인 면에서의 관리가 요청된다.

둘째, 대학 경기는 주말을 이용하여 大會를 개최하면 선수는 週間에는 공부할 수 있다. 모든 대회는 미국과 같이 주말에 또는 야간에만 갖도록 개선한다. 이것이 學生管理에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다.

셋째, 선수의 일반 教授科目은 다른 일반 학생보다 수준을 낮추어 다른 교과과정으로 수업시켜야 한다. 즉 여러 科의 운동선수가 과별로 분산되어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을 받지 않고, 선수끼리 수업을 받도록 하여 그 水準에 맞는 교육을 시켜 효과를 높인다.

네째, 수업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수업 담당 교수의 承認을 얻고 또한 레포트 및 과제물로써 수업에 대체하도록 하여 학업 의욕향상은 물론 타성화된 수업기피증에서 탈피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學業成績은 담당교수에게 재량권이 있어야 하며 제도적 분위기 또는 간접적 제약에 의해 성적을 올려 주는 데 영향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로서 각 교수에게 이 학생은 선수이니 學點에 참고하여 달라는 지시와 부탁을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학생선수 수업문제연구 자문위원회를 文敎部에 설치하여 연구·검토케 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政策에 반영케 하여야 한다. 미국 대학연맹에는 懲戒委員會에서 각 대학생의 성적을 메학기 받아 엄격하게 심사·징계하고 있으며, 각 대학 體育部에서는 학업성적을 메학기 받아 엄격히 조사하여 성적 미달자는 징계, 장학금 중지, 선수권 박탈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학교 당국의 체육부 담당자는 징계보다는 무마시키려는 意識과 政策으로 지도하고 있다.

일곱째, 자체징계 이전에 학업에 처져 있는 선수를 교수의 개인지도, 친구의 개인지도, 그룹지도를 통해 먼저 교육을 시킨다. 중·고등학교

에서 대학입학을 위해서 과외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사진계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공부를 충실히 시키기 위해서 大學課外授業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학 중 각 학교마다 다르나 선수의 평균점수가 C 이하일 때는 자동 선수박탈 규제가 되어 있는 대학이 많다. 어떤 학교든지 자기 학교 선수가 點數基準에 미달될 때에는 자체내에서 선수박탈을 시키며, 교수에게 부탁하여 어떤 非公式의 方法으로 학점을 취득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학교 전체의 間諷으로 1~3년간 팀 전체가 출전 정지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 팀이 출전 정지를 받는 것은 경기중의 사전보다 학생의 學點問題에서 오는 것이 제일 큰 사건으로 중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제도와 문제점을 개선 연구 검토해야 할 시기는 왔다. 이것이 88올림픽을 대비하는 大學體育育成代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각적인 면에서의 선수 양성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첫째, 많은 선수가 비출범에 따라 職業選手로 발탁되는 것은 매우 힘든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 때 운동하면서 자기 전공분야의 공부를 충실히 함으로써 대학졸업 후 자기 전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은 서구 및 외국의 경우 정상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선수 및 선수관리지도의 기본이 된다.

둘째, 한국에는 아직도 社會體育學科가 신설되어 있지 못해 이 분야는 미개척분야로 남아 있다. 우선 사회체육학과가 신설될 때까지 체육선수가 社會體育指導者가 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선수들이 경기경험과 관계 있는 사회체육분야의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어야 한다.

세째, 社會文化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해질수록 건강에의 關心度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준 높은 知識이 요구되고 또 이러한 지식을 운용하는 때는 자격증의 소지자가 필요한 사회로 바뀌게 된다. 선수들은 운동의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조금만 더 배우면 社

會體育의 심판자격, 코오치자격 등의 자격을 대학과정에서 얻을 수 있도록 대학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네째, 학업이 우수한 선수는 좀더 과학적인 이론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노쇠현상방지, 건강관리, 심폐기능의 향상을 위한 운동, 웰스클럽의 훈련 지도, 건강자문, 에어로빅 댄스를 통한 체력 향상과 건강 유지 등을 진단·처방할 수 있는 知識을 습득시켜 자격증을 얻게 함으로써 체계화된 사회체육 제도하에서 공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체육학과 졸업 운동선수가 教師資格證을 받는 데 문제점이 있다.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 졸업생과 사립대학 체육학과 졸업생은 같은 자격증을 가졌으나, 사립대학 졸업생은 순위고사 시험을 쳐서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체육학과 졸업생으로서는 平等性을 갖지 못하므로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섯째, 현재 사립대학 체육학과 졸업생 중 30% 이내 평균 B학점 이상만 教師資格證을 얻게 되어 있다. 자격증을 받지 못한 학생은 졸업 후 자격증을 요하는 現社會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학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하여 대학졸업자가 교육을 받기 위해 무자한 代價를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올림픽을 대비하는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체육교육은 국민학교에 기준을 두어야 성공할 수 있다.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보다 선수경험이 풍부한 대학졸업생을 국민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국민학교 體育活性化를 기하고, 남아 있는 대학 졸업자가 사회에 수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시대 변천과 교육의 革新化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체육특기생의 入學, 管理, 指導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發展的 改革을 시도하려는 의욕이 결여되었음을 먼저 정부당국의 책임자들이 인식·검토하여야 한다. *